작 곡 마 당 소 개

작곡마당은 새로운 음악문화를 꿈꾸는 작곡가들의 모임입니다.
작곡마당은 전공과 음악 장르를 초월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청중들과의 소통과 교감의 장을 만들어냄으로써 한국 창작음악의 저변확대와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곡마당은 작곡 전공자들만의 동인이 아닙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작곡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 음악 전반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문화 예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는 모임입니다. 작곡마당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실험해 보고,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작곡마당에서 작곡과 음악의 꿈을 펼치고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며, 음악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각자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을 빛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곡마당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 한국 음악의 참모습을 만들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작곡마당이 처음 시작되었던 다음 카페를 2006년 부산 작곡마당으로 변경하고, 부산 작곡마당이 조직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8월 "신동일의 작곡마당"을 부산 공연으로 치르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 정기연주회를 부산문화재단의 후원에 의해 열게 되었습니다. 부산 작곡마당 공연은 부산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나 전국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 작곡마당 공연은 매년 8월 하순 작곡마당 MT를 겸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후 원 안 내

전공 분야와 음악 장르를 초월한 새로운 창작 음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곡마당이 후원회원을 모십니다. 한국 음악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작곡마당은 2001년 첫 공연 이후 많은 언론과 일반 청중의 관심을 모으며 독특한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고, 새로운 방식의 한국 음악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분류 및 혜택

- **일반 후원회원** 연 10만원 이상 (또는) 월 1만원(자동이체) 이상
  - 작곡마당 작품집 매년 1종류 증정
  - 공연 전단 및 소식지 등 발송
  - 공연 팜플렛에 후원인 명단 게재
- **특별 후원회원** 연 50만원 이상 (또는) 월 5만원(자동이체) 이상
  - 작곡마당 작품집 또는 작곡마당 소속 작곡가 관련 상품 매년 증정
  - 공연 전단 및 소식지 등 발송
  - 공연 팜플렛에 후원인 명단 게재

후원금 납입 및 회원 등록

1. 입금 계좌 : 국민은행 122-24-0158-267
   예금주 : 백현주(부산작곡마당)
2. 후원금 납입 후 이메일(erouny@hotmail.com)이나 전화(051-513-1009)로 성명, 우편물 수령 주소, 연락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회원등록 서류와 증정품 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후원회원 구용주(하모니 합창단), 원남숙, 서수진

제 6 회
부산 작곡마당
정기연주회

- 일시 2011. **8. 26**(금) 저녁 **7:30**
- 장소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주최 부산 작곡마당
  (http://cafe.daum.net/dongilsheen)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SCF 부산문화재단
- 공연문의 051)513-1009

*이 팜플렛은 초대권을 대신합니다

*본 공연은 2011년 부산광역시 무대지원금을 일부 지원받은 공연입니다.

PROGRAM

1부 성악 및 실내악곡

유찬미 생황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낯선 Vol.2"
• 생황: 이일우 • 가야금: 성유진

김태환 박선미 시에 의한 두 편의 동요
"지금은 공사중" *• 노래: 주하은 • 피아노: 김태환*
"기쁨 두 배" *• 노래: 김주원 김대원 김해원*

홍광현 해금과 기타를 위한 소곡 "외-연(戀)" "FIELDS OF GOLD"
• 해금: 전지인 • 기타: 홍광현

이용주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아름다움이 그리운 IV"
• 클라리넷: 윤동혁 • 피아노: 김우진

백현주 가야금 · 거문고 · 생황을 위한 모음곡 "사막의 발견"
• 가야금: 성유진 • 거문고: 구교임 • 생황: 이일우

오세일 김복근 시에 의한 두 편의 가곡 "한려일출", "미더덕의 꿈"
• Bar: 강경원 • 피아노: 백현주

2부 합창곡

●연주 : 하모니 합창단 ●지휘 : 김강규 ●반주 : 윤지영

숲속의 메아리	이용주 곡
기도 *(바이올린: 유성민)*	홍수정 곡
산유화	김소월 시 김지은 곡
계화타령	정다정 곡
추억	조병화 시 김이레 곡
마른장작	김용택 시 백현주 곡

작 곡 가 프 로 필

오세일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학사, B.M.)
- 미국 메네스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석사, M.M.)
-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 작곡과 졸업 (박사, D.M.A.)
- The Kent Kennon Award 수상, LATEX Conference, ACL Festival 등 입선
- 현재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창악회, ISCM, 아시아작곡가연맹 회원

이용주
작곡가 이용주는 정회갑 선생님으로부터 음악에 대한 기초를 배웠고 장정익 선생님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현대음악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독일 유학(Freiburg)후 Cornelius Schwehr를 만나면서 작곡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현대예술에 대한 본질과 개념들을 배우게 되었다.

홍광현
-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 FolkRock Band "배낭여행", Buddhist Band "해조음" 의 리더

김태환
-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동대학원 음악교육과 졸업
- 현 부산 동래초등학교 교사.

백현주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 과정 수료
- 뮤지컬 〈왕의 녹차〉, 〈날으는 신밧드〉, 〈인형에 친구하자〉작곡. 오페라 〈아리랑〉작 · 편곡
- 국립합창단, 서울. 부산. 울산시립합창단 등에 다수 창작곡 및 편곡작품 발표
- 개인작곡발표회 4회, 작곡단체 작품발표 및 연주단체 위촉작품 다수 발표
- 현, 부산교대 대학원, 동의대 평생교육원, 부산예고 출강.

홍수정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졸업(작곡 전공)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졸업(작곡 전공)
- 2004년 서울심포니 음악콩쿨(작곡부문)2위 입상
- 현 신정중학교 교사, 부산작곡가협회 부회장, 영남 작곡가협회 및 향신회 회원

정다정
- 추계예술대 음악학부 작곡과 실기 우수 졸업
- 2004-2005 추계예대 음악학부 정기연주회 2회 당선
- 2008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Sungji Church 음반제작 참여
- Gim yong ho & Shin nal sae 연주회에서 작품 발표
- 2009 Warm Ensemble 창단 연주회 및 프럼 작곡마당에서 작품 발표
- 광화문영상미디어센터 시민영상제 출품작 단편영화 "Sunny side up"음악제작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 재학

유찬미
- 이화여대 작곡과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수료
- 개인작곡 발표회 – 소리짓기 VOL.1
- 천차만별 놀래 박인혜 콘서트 공동 디렉터 참여

김지은
-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작곡전공 2학년 재학중

김이레
- 경희대학교 작곡과 1학년 재학중

연 주 자 소 개

하모니 합창단

부산하모니 합창단은 2003년 3월 창단되었으며 합창음악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업가, 교사, 의사, 작장인, 주부 등 50여명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혼성민간합창단이다.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인 김강규 상임지휘자와 함께 클래식에서 대중가요 등 모든 장르를 망라하여 예술성과 재미있는 감동으로 합창을 재해석하여 부산시민들에게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단체이다. 매 정기연주회마다 대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거제전국합창대회와 부산국제 합창대회, 대통령배 전국합창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함으로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 단장: 장연수 • 총무: 김기응
- 상임지휘자: 김강규 • 상임반주자: 윤지영

바리톤 강경원

-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디플롬, 엑자멘, 마이스터 졸업
- 독일 작센주 장학생, 드레스덴 음대 수업조교 역임
- 안톤 드보르작, 니코 도스탈, 로버트 슈만쯔 국제콩쿨 입상
- 드레스덴 팔, 부산시향, 김천시향, 마산시향, 전주시향, 뉴프리임 등 협연
- 큰난새의 오페라시리즈"라보엠"출연,
- 해설이 있는 다이어트 오페라 기획,제작 시리즈 I ~ II (서울,부산)
-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팔리아치, 사랑의묘약, 비밀결혼, 카르멘, 에프게니오네긴, La vida Breve, 마탄의사수, 피가로의결혼, 국립창작오페라 "사절인연", 부산창작오페라 "아리랑"등 주역출연
- 오라토리오 "엘리아", "메사디쯔로리아", "구노 장엄미사", "베토벤 9.심포니"등
- 현) 부산예고, 인제대 외래교수, BS행복음악회 음악감독

거문고 구교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전문사 졸업
- 2003~2007 구교임 거문고 매력 독주회
- 2006 동경예술대학 백주년 기념공연 연주,
  오광호 클라리넷 독주회 "만남" 초연
- 2004 국악축전 다수 출연
- 국립국악학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강사 역임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강사,
  K-art's 거문고 앙상블 회장

가야금 성유진

- 국립국악 중. 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졸업 및 전문사 수료
- 2007 독일 베를린 엘리자베스/
  독일 뒤스부르크 렘브르크 뮤지엄 초청연주
- 2008 음악동인 고물 기획공연5
  '가곡에 접근하는 일곱 가지 방법'
- 2008 성유진 첫 번째 가야금 독주회 '-그리다'
- 2008~9 성유진, 허윤정 가야금 프로젝트 '샘' '가야금으로 그린 소리그림' 1&2공연

생황 이일우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졸업 및 전문사 수료
- 08 나우 무용단 '동서양 춤과 음악의 충돌' 아일랜드 투어 음악 감독, 49morphines EBS 공감 단독 공연
- 09 kleg 프랑스 브루타뉴 투어,
  49morphine's 싱가폴, 중국 투어
- 10 프린지 페스티벌 참여, 빅보이 프로젝트 선정 및 두산 아트센터 공연
- 11 문래 예술공장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 선정(MAP)
  안무가 강남진 '똥개' 음악감독 및 슬로바키아 투어 참여
  헬로루키 선정 및 EBS 공감 출연
  퀸타포트 락 페스티벌 참여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문화교류 및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투어 참여
- 현) 49morphines 기타리스트, 잠비나이 단원

해금 전지인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국립국악원주최 96국악동요제 동상수상
  (음악교과서수록작품 "우리장단 배워보자")

바이올린 유성민

- 경원대학교 음대 및 부산대 대학원 졸업
- 부산예술중학교 출강
- 부산신포니에타, 비다오케스트라 단원

피아노 김우진

- 심악 피아노콩쿨 대학 일반부 3위, 한음콩쿨 대학부 2위
- 경원대주최 Klaus Helwig교수 초청 세미나 연주
- 피아노과 정기연주회 출연(예음홀, 모차르트홀)
- 현 경원대학교 피아노과 4학년 재학(심기수석)

클라리넷 윤동혁

- 연세대학콩쿨3위
- 코리아 클라리넷 앙상블 및 경원 클라리넷 앙상블 협연
- 현 경원대학교 4학년 재학

노래

- 주하온 (동래초등학교 5학년)
- 김주원 (동래초등학교 2학년)
- 김대원 · 김혜원(동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PROGRAM NOTE

유찬미 생황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낯선 Vol.2"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낯선" Vol.1 에 이어 같은 주제를 갖고 가야금과 생황을 위한 곡으로 새로 쓴 곡이다. 새로운 것을 대면했을 때 난.. 항상 두렵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내숭을 떨고 있지만 속으로는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어디론가 숨고만 싶다. 이 두 악기도 그랬을까? 두 악기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서로의 "낯선" 소리, "낯선"음악, "낯선"만남을 가야금의 현대적인 주법과 생황의 반복적인 4도 화성과 5도 화성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김태환 박선미 시에 의한 두 편의 동요 "지금은 공사중", "기쁨 두 배"

지금은 공사중은 친구와 다툰 일을 후회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난 시이며, 기쁨 두 배는 더 귀한 가치를 깨닫고 자라가는 어린이의 마음이 잘 드러난 동시이다. 시인이 표현하고자했던 아름다운 동심을 꾸밈없이 소박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홍광현 해금과 기타를 위한 소곡 "외-연(戀)" "FIELDS OF GOLD"

"외-연(戀)"에서 "외"는 우리말의 접사로써 홀로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모할 "戀" 자를 붙이면 우리말로 〈외사랑〉 쯤 되겠습니다... 상대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혼자서만 가슴앓이 하는 슬픈 감정을 해금과 기타선율로 풀어낸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FIELDS OF GOLD"입니다. 해지는 서쪽 노을을 바라보며 노랗게 물드는 대자연에 대한 소박한 마음과 어김없이 나머지 반 바퀴를 돌아 내일이면 동쪽에서 다시 만나고야 마는 붉은 태양을 보내며, 아름다운 노을과 그 아래 펼쳐진 드넓은 황금빛 들녘에 대한 풍경을 헤어짐이 헤어짐이 아니듯, 해금과 기타가 조를 바꿔가며 계속 이어가는 서정적인 곡입니다.

이용주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아름다움이 그리운 IV"

이 작품은 "아름다움이 그리운"이란 타이틀로 작곡된 네 번째 작품이다. 그동안 같은 제목으로 클라리넷3중주, 합창, 현악6중주의 각기 다른 편성의 작품들이 만들어져 왔다. 같은 음악적 목적 안에서 다른 [illegible]들로 작곡가가 상상하는 세계를 표현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 사이사이에도 밝은 세상을 꿈꾸며(현악 6중주), 빛을 듣는다(클라리넷7중주), 눈으로 듣는다(현악 오케스트라), 인간사랑(현악 오케스트라)등등의 작곡가의 비슷한 이상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작곡되었는데, 이것들 역시 같은 맥락 안에서 표현의 기법들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작품 " 아름다움이 그리운 IV "는, 앞서 밝힌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현대음악의 날카로운 음향 안에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소리들을 찾아나가는 작품이다. 미학적 입장에서 보면, 현대사회를 고통스런 현실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를 꿈꾸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백현주 가야금, 거문고, 생황을 위한 모음곡 "사막의 발견"

사하라사막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기행문처럼 만든 작품이다. 지구반대편이라는 공간적 거리감보다 과거로 여행을 온 듯한 시간적 거리감이 나의 마음을 더 설레게 만들었던 것 같다. 가야금과 거문고, 생황 3중주를 위한 다섯 개의 모음곡으로 만들었다.

1. 투아렉 소년의 동경
2. 짐지고 가는 베르베르 여인들
3. 그래도 아이들은 자란다
4. 붉은 모래 속 낙타의 행렬
2래언덕에 누워 별을 보다

*투아레그족(Tuareg)은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많은 유목민으로 알제리, 말리, 니제르 등지에 살며, 약 30만 명에 이른다. 가축을 몰고 다니며 목초지를 찾아 사하라 사막 이곳 저곳을 옮겨다닌다. 귀족, 가신, 노예 등의 계층이 존재하며, 사회적으로 남녀가 평등하다.

*베르베르(Berber)족: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이나 사하라 사막에 아랍인 · 베두인족과 더불어 분포되어 있는 함어계(語系)의 인종.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오세일 김복근 시에 의한 두 편의 가곡 "한려일출", "미더덕의 꿈"

오늘 연주될 두 개의 가곡은 김복근 시인의 현대시조를 텍스트로 하여 작곡된 것이다. 한려일출은 한려수도에서의 생명력 넘치는 해돋이의 장관을 표현하고 있고, 미더덕의 꿈은 미더덕을 의인화 하여 느끼는 고요한 바닷가에서의 정경과 사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용주 여성합창을 위한 "숲속의 메아리"

노래음악은 현대음악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언어를 음향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작품 "숲속의 메아리"도 이와 같은 표현방법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 조용한 숲속에서 들려지는 온갖 자연의 소리들을 언어적으로 모방하고, 그것을 음악적 소리로 전환시킨 것이다. 물론 여기서 모방된 자연의 소리라는 것은, 작곡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재탄생된 부분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작품 후반부(141마디)부터 등장하는 라라라...가사가 만들어내는 색채는, 모방의 차원보다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내적 평안과 동경의 세계를 그리려 한 것으로서, 작곡가 자신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홍수정 기도

이 곡의 가사는 한 20년 전쯤 메모해둔 구절에서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구절의 지은이를 현재 알 길이 없다. 특히 곡 중간의 바리톤 솔로 '나는 먼 길을 달려온 나그네요. 숱한 경험의 뒤엔 피곤만이 남았소.....' 이 구절은 세월이 갈수록 마음에 와 닿는다. 많이 수고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남는 것은 피곤과 공허함 뿐인 삶. 답이 없다. 그 분 밖에는.....

김지은 산유화

이곡은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중 하나인 산유화라는 시에 선율을 붙여 만든 합창곡입니다. 세도막형식으로 크게 A-B-A'로 나누어지는데 A에서는 다소 우울하고 외로운 느낌의 선율이 주를 이루었다면 B에서는 A와 대조적으로 밝고 서정적인 선율로 이루어있으며 A'에서는 A에서 소프라노와 알토가 화성적으로 불렀던 부분을 모든 성부가 유니즌으로 부르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존재의 근원적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시는 삶, 죽음, 세계라는 곳에서 죽음을 감당하는 것은 철저히 당사자 혼자의 몫이라는 작가의 뜻을 '혼자 피었다 진다'라는 가사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저도 이러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마지막부분에서 선율이 클라이막스로 치솟다가 급격히 하행하여 하나의 음으로 끝나는 선율을 사용해 꽃이 지는 느낌을 살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정다정 계화타령

'계화타령'은 제주도 민요 중 하나이다. 육지의 잡가에도 있으나 듣기가 매우 힘들며, 제주도에서도 성읍 지방의 노인들이 부르고 있을 따름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민요를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다시금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만들어보았다.

가사 및 해설: 옛다 요년 돈 받아라 계화(기생 이름)는 삼경에 돌고서
짐(김) 계화 내 돈만 받아라
널랑 낳건(네가 다시 태어나면) 백록담 선녀로 하강을 하고
날랑 낳건(내가 다시 태어나면) 할로산(한라산) 나뭇꾼이 되리라
옛다 요년 돈 받아라 계화(기생 이름)는 삼경에 돌고서
짐(김) 계화 내 돈만 받아라
정든 서봉(서방)이 왜독단(외진) 골목에 아리 둘이 만나서
욕심서니 아이고야 발이 발발이 떠는다

김이레 추억

조병화 시인의 '추억'은 한 여류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화려한 모습에 매료된 시인이, 갯벌에 앉아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즉흥적으로 읊조린 시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동료 최영섭에 의해 곡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추억'이라는 시에 선율을 붙이기 시작한 것을 4부합창곡으로 다시금 편곡하였다. 그리움과 함께 묻어나는 아련함과 쓸쓸함을 표현하고자했다. 지난날들을 떠올리며 가슴가득 퍼지는 애틋한 마음들에, 그것은 모두 추억이며 기억의 한편이라는 사실을 가슴절절하게 그려내고 싶었다. 어쩌면 그 추억들에 눈물지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삶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 아닐까…

백현주 마른장작

참 재미있는 시, 솔직담백하고 맛깔스러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정겨웠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 사투리로 된 노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시를 택하여 합창곡을 만들게 되었다. 전라도 말의 어감을 살려보고자 했으며, 다소 불안정한 감정변화의 추이를 음악의 밀도 및 원근감을 통해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였다.